#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 (마6:19~3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돈 안 벌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세상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돈을 안 벌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리가 없지요.
어떡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지, 돈 안 벌고 살기로 작정한 그런 클럽은 없다고 봐요.

지난 주 동서남북을 하는 중에 그냥 제가 장난삼아 가볍게 농담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여기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을 만들자!'
장난으로 한 말인데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이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이라는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장난삼아 외쳤기에 제가 제정신이라고 판단이 되지, 그걸 진지하게 말했다고 한다면 동서남북에 오신 분들과 얘기하면서 거기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게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난으로 한 얘기가 내가 인생을 걸면서 나 혼자서라도 지켜가야 할 신앙의 기준이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돈 안 벌고 살기, 구태여 '돈을 안 벌겠다'고 표명하고 살지 않으면 기독교신앙이 제대로 삶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거니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돈을 안 벌고 살겠다고 드러내놓고 결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는 돈 안 벌고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인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입하던 가입하지 않던 저는 이제부터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에 가입하세요!'라고 말하려고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라는 얘기만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십자가에 걸려 있는 약속에 따라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과 대결하는 대항마로서 돈을 끌어올리십니다, 돈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신앙의 맥락 안에서 - 신앙의 맥락이 아닌 상태에서는 게을러 빠져서 돈을 안 벌겠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남의 것 도둑질해서 먹고 살려고 돈 안 벌겠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 신앙의 맥락 안에서 돈을 안 벌고 살겠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다 돈 섬기는 게 돼버려요, 마몬을 섬기는 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거나 말거나 하여간, 돈 안 벌고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 두세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클럽회원이 되던 안 되던 상관이 없어요, 클럽 회원이 안 되더라도 혼자서 돈 안 벌고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그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의 강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아주 rough 하게 대략적으로 2대 강령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강령은 '돈 쓰기' 그리고 둘째 강령은 '돈 받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의 2대 강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돈 쓰기'는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난데없이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걸 연결해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과 연관 지어서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물과 연관해서 마음이 나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곧 눈이에요.
보물과 연관되어서 마음의 작용은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눈,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섬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몸으로 바라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이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돈을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건 곧바로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디다 지불하느냐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지불하고 그 보물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더 원초적으로 말하자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보물과 연관 지어서 바라본다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합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돈을 쓸 때 땅에다 보물을 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좀이 슨다’고 나옵니다. 무슨 보물에 좀이 스나?
옛날에는 옷이 보물이었어요, 요즘도 그렇지요?
밍크코트, 하~ 동서남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밍크코트가 열 한 벌이 있었는데 외국에 가서 몇 년 지내시는 동안에 그 밍크코트를 다 도둑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옷이 보물이에요.
그리고 동록, 녹이 슨다고 한 걸 보면 금붙이로 만든 무엇인가가 보물로 여겨졌어요, 돈 주고 그걸 산다는 겁니다.

내 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갖고 싶다고 느끼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사게 될 때, 이 땅에 다 보물을 쌓는 게 됩니다.
이거는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회원들이 돈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쓰기는 하늘을 보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돈을 쓸 때, 돈을 쓰고 있지만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봅니까?
일단 하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늘을 보면서 내게 들어온 돈을 쓰는 건데,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땅을 안 봅니까?
눈 감으면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땅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난 땅에 대해서 죽었다.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신앙행위가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내용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땅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줄 때, 십자가에 걸린 약속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하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밍크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양과 디자인이 아주 예뻐요, 그때 십자가에서 밍크코트에 대해서 죽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이때 차에 대해서 죽어요, 이렇게 모든 세상에 대해 돈을 쓰고 싶은 일이 생기는 내 몸의 시각과 청각과 느낌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버릴 때 마음이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보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돈이 쓰여 져야 할 곳을 가르쳐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루 세끼 먹는 것, 외식을 할 때조차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시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것을 가르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십자가로 철저히 죽으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상태에서 - 마음이 하늘을 느껴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나의 욕구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 그때 하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느껴져서 외식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으면 그 짜장면 값 4천 원이 하늘에 저축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내게 들어와 있는 돈을 쓸 때에 다 하늘에 저금된다는 겁니다.
꼭 교회 헌금하는 것만이 하늘에 저금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쓰는 게 다 하늘에 저금되는 거예요, 쓰는 게 저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아,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물처럼 내가 잘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을 사느라 쓴 돈이 하늘에 저축됩니다.
꼭 교회 헌금한 것만 저축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쓰는 것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면 안돼요.
내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려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갖고 싶은 것이 없어도 전혀 내 마음이 욕구로부터 자유롭다, 없어도 된다고 느끼는 지점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의 뜻은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동돼요.
이렇게 하늘 보고 돈 쓸 때 하늘에 저축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이 뭡니까?
돈 받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겁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이 느끼는 필요에서부터 돈을 벌려고 우리는 뛰어나가는 겁니다.
돈 벌기가 내 몸이 느끼는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먹고 입고 거하고 마시고 하는 이런 돈을 벌게 하는 기본적인 필요들은 하늘아버지, 조물주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물주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물질을 조성하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을 만드신 주인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조물주께서 물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걸 다스리신다고 그래요.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는 말은 요즘 말로 물류, 재화의 유통을 의미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하나님이 물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안 법니다.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본문에서는 마몬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몬,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아주 귀신으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몬이라는 귀신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부터 돈을 벌려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출발하면 마몬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까지 마몬을 섬기는 줄 아느냐?'
'돈을 벌려고 하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아버지를 부른다.'
돈이라는 귀신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돈을 보고 쫓아가니까, 그저 마음으로 돈을 바라봅니다,
'돈이 없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좋다'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마음으로 돈만 바라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긴다, 이건 귀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강령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직업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버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원래 타락 이전 에덴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의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

에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이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통치가 되는데 그 통치 가운데 굳이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의(義)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나오시는 분들 중, 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그렇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대낮에 암흑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갠지즈 강변에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을 때 살인한 자에게도 같은 해가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나가시고 내 삶의 주변을 다스려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입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입히신다.
그러므로 악인이 옷을 사러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악인에게 입히시려고 하는 것으로 작용할 때 나는 그 통로가 되어 드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악인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아버지의 긍휼 어린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는 거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옷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이겁니다.
돈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아버지로써 이 세상의 물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돈은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물론, 옷을 팔았을 때 그 사람이 산 값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옷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과 생각은 옷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파는 것은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

나님이 옷을 입하시기 위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섭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손님이 오던 안 오던, 사던 안 사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온전히 그 손님을 위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장사하는 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돈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참가하는 분 중에 자동차 딜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업 활동을 이제는 돈 벌겠다고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몬을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덟 시부터 여섯 시까지 근무하는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사장님이 칭찬하도록 열심히 뛰었다고 해도 마몬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신앙이 아니라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시간 동안 돈을 안 벌어야 신앙입니다.
하나님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듯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 공급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끝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을 바라보며 직업 활동을 하라 이겁니다.
돈을 안 버는 거예요, 이제, 돈을 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다면, 직업이 없을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돈벌이를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직업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따로 주십니다, 물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물류를 따라서 내게 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돈은 하늘을 보며 쓰면서 하늘에 저축해야 됩니다, 첫째 강령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나가실 때에 도대체 이 몸을 살려두신 이유는 분명히 이 몸을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 버는 직업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만일 돈 안 생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그뿐인 겁니다.
설교를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라고 하셨으면 설교를 하면 그뿐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물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고 나갈 것입니다, 물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돈 안 벌고 사는 겁니다.
돈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많이 주면 또 하늘 보면서 그 많이 들어온 돈을 다 쓰게 되면 되는 거죠.
많건 적건, 하늘 보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은 이방인이고 불신앙이고 이단입니다.
'돈을 벌자, 돈을 많이 벌자, 돈 버는 일에 성공하자' 이게 다 이단이라고 보면 좋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복을 이 세상의 물질로 상징화 시켜 얘기했던 구약에서조차도 돈을 벌라는 말은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돈 벌자는 얘깁니까?
에덴에서의 타락 이전의 노동은 하나님이 에덴을 다스려나가실 때에 그 에덴을 다스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내가 맡아야 될 부분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의 동물의 '이름 짓기'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그 다스리시는 부분 중에 이 몸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담당하는 것, 하나님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돈 버는 일은 상관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 벌겠다고 나가면 마몬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 노동의 대가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돈을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뿐이지 내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동은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다 보상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추악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보상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은 것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십자가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훌륭한 음식도 드시고, 훌륭한 차도 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양심껏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세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서 벤츠가 없어도 된다, 마티즈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벤츠를 주시면 타세요.

자,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은 그저 제가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기억하고 사는 동안에 더 세부적인 강령 같은 것들이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장난삼아 던진 이 말에 이 땅에서의 몸으로 사는 삶의 내용을 걸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아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도 돈 벌러 나가십니까?
마몬을 섬기시는 겁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돈은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뇌시켜버린 겁니다.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저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의 회원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 안 벌고 살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백중 백 다 그렇게 비아냥거릴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주님의 말씀이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회원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요, 마몬을 섬기는 거라고 하시니 한번 이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돈 안 벌고 살며 오직 직업은 하나님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고 그 아들딸들로서 조물주 되시는 아버지가 물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 옷을 입으며,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